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아산 정주영의 나눔 철학

고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아산)은 밀턴 프리드먼이 대변하는 기업철학인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지했던 것 같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고용과 납세가 이루어지고 협력업체들이 살 수 있다. 품질 좋은 물건을 잘 공급하면 사회의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지도적인 이념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다른 경로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산은 기업이 부실해 지거나 부도가 나면 사회에 폐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아산이 "기업이 튼튼하려면 사회가 건강해야 하고,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확고한 기업철학을 가졌었다고 전한다.

아산의 회고록 제목은 '이 땅에 태어나서'다. 책 맨 뒤면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기업인이자 성실한 노동자로서 이 나라의 비약적 발전에 한몫을 다한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자신을 기업인인 동시에 노동자로 본 인생을 살았던 아산은 현대의 성장에 기여한 근로자들을 마음으로 항상 잊지 않았다.

1970년대에 정부가 현대건설의 기업공개를 종용했을 때도 공개를 미루고 그 대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50%를 출연해서 1977년 7월 1일에 아산사회복지재단(아산재단)을 설립했다. 배당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아산재단 홈페이지에는 아산이 재단 설립발표 기자회견 중 한 말 이 소개되어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고와 가난이 그것입니다. 병고와 가난은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병치레를 하다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에 온전하게 치료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대는 건강하고 유능한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에 뜻있게 쓰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재단의 최 주력 사업은 아산병원이 상정하는 의료 사업이다. 서울아산병원을 포함

전국 여덟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1989년 6월 개원해서 총 2705병상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이다. 2019년 뉴스위크지는 서울아산병원을 한국 1위의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아산병원은 글로벌 10대 병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아산재단은 2018년까지 사회복지사업에 총 1114억 원(4636단체), 장학사업에 658억 원(총 3만 2214명), 학술연구에서 총 212억 원(2,340건)을 지원했다. 수많은 독지가들이 재단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서울아산병원 1층 홀에 기부자들의 이름이 기려져 있다.

아산재단의 발전은 아산의 유지 중에서도 비중이 매우 큰 것이다. 아산은 아산재단이 "100년, 200년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몇 안 되는 소망이며 아산재단의 발전이 현대를 있게 한 사회에 대한 보답이고"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해서 크게 발전한 한 개인의 생이 거두는 최선의 보람 "이라고 생각했다.

2011년 10월에는 아산의 10주기를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아산

나눔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의 목적은 아산의 도전과 혁신 비전을 전승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을 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청년 창업가와 사회개혁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창업 생태계 구축에 노력한다.

아산나눔재단의 상징인 '마루 180'은 2014년에 문을 열고 청년들에게 창업 인프라, 네트워크, 교육을 제공해 왔다. 국내 대표 창업지원센터로 자리매김했고 서울 역삼동 일대를 스타트업 중심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0년에는 '마루360'이 출범해서 제조, 뷰티, 브랜드 등 분야의 창업가와 크리에이터가 교류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시작한다.

사실 신세대는 아산에 대해 별 기억도 이미지도 없다. 그러나 정작 신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산의 혁신과 창업 정신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각 분야 글로벌 5대 기업 CEO를 포함해 무수한 기업을 창업하고 성공시킨 정신은 화성에 가겠다는 일론 머스크도 함참 고개를 숙일 일이다.

아산나눔재단은 아산의 신세대에 대한 유산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발현되는 곳이다. 아산이 돌아와 후세들이 해놓은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마도 아산나눔재단의 활동을 보고 가장 기뻐할 것 같다. 역삼동에서 한국관 아마존과 구글이 자라고 있기를 기대한다.

社 說

총선에 참고해야 할 범죄이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채 80일도 남지 않았다. 선거가 목전에 이른 것이다. 벌써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주어진 여간하에서 최선을 다해 공천을 거머쥐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총선에 나서는 광주·전남 예비후보자 5명 중 2명이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양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95명 가운데 39명이 전과 기록 83건을 제출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법 위반 사례가 25건,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20건으로 주를 이뤘다.

특히 눈길을 끄는 후보자가 있다. 광주 광산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뜻을 밝힌 조 모 혁명당 예비후보는 청소년을 강간한

행의 등으로 지난 2007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진 이는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최 모 혁명당 예비후보였다.

그는 음주운전, 공동상해, 상해 등 8개 전과기록을 냈다. 범죄전력이 있다고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재산, 학력, 전과기록과 같은 후보자 정보를 공개한다. 이날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된 95명 중 민주당 소속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범죄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투표시 참고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한 때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흉악범의 경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돼서야 명예가 되겠는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 고 국 (062) 224-5800
기 사 제 보 (062) 971-7400
팩 스 (062) 222-5547

회 장 · 발 행 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 사전정비 사용주의 음주음금 생활화 해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좁은 농로나 비탈진 경사로, 굽은 길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아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경운기의 경우 구동벨트를 덮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전도 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고, 야간 운행 시 뒤따르는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16-2018) 농기계사고는, 총 3002건이 발생해 이중 191명이 사망하고 712명이 부상당했다.

시기적으로는 파종기인 봄과 수확기인 가을(5월~10월) 사이에 1917건(63.9%)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주행형 농기계 사고가 1392건(46.4%), 작업 중 깔리거나 정비·점검 중 신체의 일부가 끼이고 감기는 사고가 1610건(56.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좁고 굽은 농로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보조자로 하여금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농기계 정비는 작업 중이 아닌 작

업 전후에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을 정지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운기는 엔진 회전부에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후면에 야광반사판이나 야광스티커 등을 부착해 뒤따르는 차량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는 자주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고 농번기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라 사용 전에 충분한 점검과 사용법 숙지가 중요하다.

백중희 / 소방안전관리자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